“형제냐구요? KIA ‘필승 배터리’입니다”

도약 꿈꾸는 한승혁·한승택

2년 터울 덕수고 선후배
머리에 공 맞고 뼈 부러지고
시련 이기고 팀의 미래로

‘고진감래(苦盡甘來)’의 KIA 투수 한승혁과 포수 한승택이 ‘필승 배터리’를 꿈꾼다.

두 사람에게는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올 시즌이었다. 그라운드에 찾아온 새봄, 한승혁과 한승택에게는 겨울 같던 시간이었다.

한승택에게 먼저 시련이 찾아왔다. 2013년 이용규의 보상선수로 KIA로 이적했던 한승택은 지난가을 제대를 하면서 타이거즈 맨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했다. 미국 애리조나 교육리그가 출발점이었지만 경기 도중 머리에 공을 맞으면서 언어장애가 생길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 다른 선수들이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을 때 한승택은 야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승혁에게도 잔인한 봄이었다. 2015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투구폼 교정에 나선 한승혁은 스프링 캠프에서 한층 정교해진 공을 뿌리며 올 시즌 KIA 마운드를 책임질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캠프 막바지 팔꿈치 통증에 시달린 그는 결국 재활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시련은 계속됐다. 복귀하자마자 웨이트를 하다가 왼손 엄지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힘겨웠던 봄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맞이한 가을은 꿈같다.

한승혁은 연이은 부상 속에서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며 심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달라진 마음가짐은 마운드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위기에 쉽게 흔들리던 한승혁이 아니었다. 필승조가 지쳐있던 가을, 한승혁은 KIA 불펜의 구세주가 되어 팀의 5강을 이끌었다. 마무리 임창용이 흔들렸던 9월8일 NC와의 홈경기에서 난적 테임즈를 상대로 생애 첫 세이브를 장식했고, 10월5일 대구 원정에서는 천금 같은 홀드로 5년만의 가을 잔치를 확정했다.

한승혁은 “폼을 바꾼 게 좋은 결과로 나와서 더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잘하다가 갑자기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팀의 중요한 시기에 꾸준히 역할을 한 것도 좋았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뛰지 못해 아쉽지만 더 안정감있는 모습을 보여 다음에는 당당히 큰 무대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승택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스타였다. 그는 KIA의 막내 선수였지만 1·2차전 모두 굳게 안방을 지키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2차전은 0-1의 아쉬운 패배로 끝났지만 과감한 리드와 신들린 듯한 파울 플라이 캐치로 팽팽한 승부를 이끌었다.

한승택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다. 포수 쪽으로 오는 플라이 타구는 까다롭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잘 잡지 못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스타트가 빨랐다. 몸을 멀리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웃음). 부상 이후 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해서 힘들기도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올해 최고 중요한 경기를 뛰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KIA의 ‘필승 배터리’를 꿈꾸는 투수 한승혁과 포수 한승택이 마무리 캠프가 꾸려진 오키나와 킨구장 보조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을 결실을 이룬 두 사람. 나란히 41번과 42번을 쓰는 두 사람은 2년 터울의 덕수고 선후배 사이다. 이름도 비슷해 헤프닝도 많았다. 그러나 빅리그의 콜을 받던 3학년 투수와 1학년 신입생 포수였던 두 사람은 덕수고 시절에는 호흡을 맞춘 적이 거의 없다. 이제는 KIA의 든든한 미래가 된 두 사람이 ‘필승 배터리’를 꿈꾼다.

한승혁은 “캠프에서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 올 시즌에 얻은 것과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커브 연습도 했다. 고등학교 때와 2014년 선발을 할 때 커브를 던졌는데 많이 던지지 않아서 감이 떨어졌다. 빠른 볼을 더 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프링캠프에서도 커브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승택은 “부상 없이 캠프를 치르는 게 우선 목표였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을 했다. 방망이에 신경을 많이 썼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면서 재미있었고 욕심도 생겼다.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리띠 졸라맨 삼성…떠나는 스타들

프로야구 4년 연속 내부 FA 유출
배드민턴 이용대도 삼성전기 결별
축구·농구·배구 등 투자 의지 없어

삼성그룹이 만든 스포츠단 대부분을 보유한 제일기획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스포츠단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제일기획 산하 스포츠팀은 이미 긴축 재정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난제가 겹쳤다. 삼성 스포츠 구단은 더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규모가 큰 야구단 삼성 라이온즈부터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2011~2015년, 5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라이온즈는 올해 9위에 그쳤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분위기다.

이번 겨울 FA(자유계약선수)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최형우는 삼성과 계약하지 않고, 4년 100억원에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4년 연속 내부 FA 유출이다. 2013년 시즌 종료 뒤 리그 최고 마무리 오승환이 일본에 진출했고, 이듬해에는 좌완 불펜 권혁과 우완 선발 배영수(한화 이글스)가 FA 자격을 얻고 팀을 떠났다. 주전 3루수 박석민도 지난겨울 NC 다이노스에 둥지를 틀었다. 라이온즈는 두산 베어스 내야수 이원석과 4년 27억원에 계약하면서 12년 만에 외부 FA를 영입했다. 하지만 이탈한 내부 FA와의 격차는 금액 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축구에서도 투자가 줄면서 곧바로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원 삼성은 강등 위기까지 몰렸다가, 7위로 올 시즌을 마쳤다. 모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시즌 초반부터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하위 스플릿(정규리그 7~12위)으로 밀려 명문구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6월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을 영입하지 않았다면 더 참혹한 성적을 낼 뻔했다.

농구와 배구는 샐러리캡 제도로 인해 다른 종목보다는 투자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남자 프로농구 삼성 썬더스는 FA 시장에서 문태영을 영입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선수단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다.

제일기획은 “구단 운영비는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뀌기 전과 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스포츠단이 위축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

아마추어 종목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테니스, 럭비팀을 해체했다.

그리고 한국 배드민턴 최고 스타 이용대도 삼성전기를 떠나 새 둥지를 찾을 전망이다. 최종 목적지는 요넥스가 유력하다. 이번 계약이 마무리되면 이용대는 2007년 1월 삼성전기 입단 이후 10년 만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새 소속팀에서 뛰게 된다.

최근 삼성 스포츠단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합리적인 투자’라는 명목으로 스타 플레이어들과 계약에 실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구회·한은회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김응용 지지”

사단법인 일구회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가 2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으로 김응용(75)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일구회는 “대한야구협회의 내홍에서 비롯된 야구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야구인의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며 “야구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 김 후보만큼 적합한 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프로야구 감독으로 10차례 우승 경험이 있고 삼성 라이온즈 구단 사장으로 행정 경험도 쌓았다”며 “유니폼을 벗은 뒤에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은회 역시 성명을 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중심에 설 최적임자는 선수, 감독, 경영자 등으로 야구계 전역에서 활동하며 큰 성과를 이룬 김 후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야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며 “한은회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야구협회는 협회 내부에서 서로 비난하고, 고소하는 등 큰 파열음이 났다. 결국, 지난 6월 대한야구협회와 대한소프트볼협회, 전국야구연합회 등 3개 단체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 통합했다. 회장 선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치러진다.

야구인인 김응용(75) 전 한화 이글스 감독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안(64) 2.1 연구소 이사장이 선거에 나선다. /연합뉴스

ML 도전 황재균 ‘주가 상승’

美 포브스, 다저스 2루수 후보에 포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KBO리그 출신 내야수 황재균(29)의 주가가 매일 올라가고 있다.

메이저리그 20개 구단 앞에서 성황리에 쇼케이스를 마무리한 후 꾸준히 현지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8일 스포츠 섹션에서 다저스의 내년 주전 2루수 후보를 소개하며 황재균을 명단에 포함했다.

포브스는 “KBO리그에서 10년을 뛴 황재균은 2015년과 2016년 장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2015년 올스타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황재균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어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고 있다. 주 포지션은 3루지만, 유격수로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시작한 만큼 2루 수비도 가능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황재균이 거포가 즐비한 3루보다 2루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황재균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 내야 전 포지션과 외야 훈련까지 소화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다저스는 주전 유격수 코리 시거와 ’키스톤 콤비’를 맞출 2루수를 물색 중이다. 올해 다저스의 2루를 책임진 베테랑 내야수 체이스 어틀리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었다. 다저스의 영입 1순위는 올해 홈런 42개를 때린 브라이언 도저(미네소타 트윈스)다. 도저는 2루수 가운데 보기 드문 40홈런 타자로 거듭난 데다가 내년 만 30세로 전성기에 접어들 나이다. 여기에 FA 자격 취득까지 2년이나 남겨뒀고, 올해 연봉은 9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다저스가 도저를 영입하려면 팀 핵심 유망주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포브스는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이 플랜 C와 D까지 생각할 게 틀림없다”며 황재균의 이름을 적었다. /연합뉴스

이대호 ‘주목할만한 35세 FA’

MLB닷컴 선정…‘톱 10’ 외 20명 후보에

MLB닷컴이 이대호(34)를 ‘주목할만한 35세 FA(자유계약선수)’로 꼽았다.

MLB닷컴은 28일(한국시간) 현지 나이 기준으로 35세 이상 선수 중 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전력상 보탬이 될 선수 이름을 나열했다.

이대호는 자세히 설명을 곁들인 주요 선수 10명에는 꼽히지 못했다. 하지만 MLB닷컴은 10명 외에 20명의 35세 이상 FA들을 언급했고, 이대호의 이름도 불렸다.

이대호는 올해 시애틀 매리너스와 1년 계약을 했다. 시애틀은 메이저리그 승격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이대호는 스프링캠프에서 경쟁자를 제치고 개막 로스터(25명)에 포함됐다.

우타 1루수로 역할이 제한돼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전반기에는 타율 0.288, 12홈런, 37타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반기 막판 부상에 시달렸고 마이너리그에도 한 차례 다녀왔다. 후반기 성적은 타율 0.200, 2홈런, 12타점으로 뚝 떨어졌다.

이대호는 올 시즌을 타율 0.253, 14홈런, 49홈런으로 마친 뒤 “전반기 부상 신호가 왔을 때 조금 쉬었다면 한결 나은 몸 상태로 후반기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당장 뛰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 후반기에 고전했다”고 곱씹었다.

FA가 된 이대호는 미국과 일본, 한국 진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협상 중이다.

이날 MLB닷컴은 호세 바티스타(36), 카를로스 벨트란(40), 조 블랜턴(36), 라자이 데이비스(36), 맷 홀리데이(37), 마이크 나폴리(35), 앙헬 파간(35), 우에하라 코지(42), 체이스 어틀리(38), 브래드 지글러(37)를 주목할 35세 이상 FA 10명으로 꼽았다. 이대호는 말론 버드(39), 라이언 하워드(37) 등과 ‘뒷순위 20명’으로 평가받았다. /연합뉴스